

A

S t u d y

o n

M u l t i p l e

M o b i l i t y

다 차 원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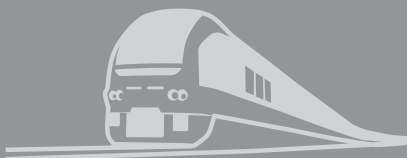
이 동 성 에

대 한

소 고



**TRAFFIC**



**COMMUNICATION**



**김신동**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Sin-dong Kim**

Professor, Division of Communication,  
Hallym University

김신동 교수는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의 교수이며 정보기술과 문화연구소의 소장이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 호주의 맥쿼리 대학, 프랑스의 시앵스 포와 필리핀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그는 Contemporary Television, Perpetual Contact, Mass Media in Asia, When Mobile Came, 등에 글을 기고하였다. 최근 관심 연구분야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초국적의 문화 흐름 분야이다.

Shin Dong Kim is a professor of communication and the director of Institute for Communication Arts and Technology at Hallym University, Korea. He earned PhD in Mass Communications from Indiana University, and has taught at Various institutions such as Dartmouth College, US; McQuarie University, Australia; Sciences Po, France; and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He has contributed chapters in Contemporary Television, Perpetual Contact, Mass Media in Asia, When Mobile Came, etc. His recent research interests cover mobile communication and transnational cultural flow.

# 다차원적 이동성에 대한 소고

## 1 이동성(mobility)이란 무엇인가?

지난 10여 년 사이 세계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극적인 등장을 경험하고 있다. 극적인 등장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모바일 미디어의 등장과 발전, 보급 등에서 보이는 속도와 범위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이동성의 극적인 신장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모바일 미디어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실 모든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는 이동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동성이란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주체의 이동 가능성, 혹은 이동 능력을 말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인간이 그 자리에 있었다. 인간은 존재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을 오랄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해 왔는데 약 6천년 전 문자의 발명은 새로운 기원을 열었으며, 메시지와 발화자가 분리될 수 있는 기반을 놓았다. 물론 다른 사람의 말을 구두로 전달하는 방법에 의해 발화자와 메시지가 분리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구술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은 언제나 그 기억의 용량이나 전달되는 메시지의 정확성, 혹은 원본과의 동일성에 제약이 명백하였으며, 근본적으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주체와 메시지의 동일 공간 및 시간 상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문자의 등장은 주체와 메시지를 분리하고 기억에 의한 저장 대신에 기록에 의한 저장을 발달 시켰으며 분석적 사고를 촉진하였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과 논의는 여기서 일일이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sup>1</sup> 문자의 발명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의 이동성에 큰 영향을 남겼다. 기록은 지식을 체계화 하였고 먼 거리를 계획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술과

기록의 터전을 제공하였다. 이동하는 인간은 정주하면서도 원거리간 소통을 지속할 수 있는 우편 시스템을 고안하였고, 여러 사람을 하나의 메시지로 묶어내고 결국은 민족국가의 성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스미디어 시스템도 고안하였다.<sup>2</sup>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물리적 이동 가능성, 혹은 이동성이 사회변동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으로부터 보다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리적 이동성을 신장시켜온 두 가지 지배적인 기술 분야는 두 말할 나위 없이 교통과 통신이다. 영국과의 독립 전쟁에서 미국을 이끌던 워싱턴이 뉴욕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사흘이었다. 지금은 두어 시간 거리다. 지금과 같은 이동 속도를 가졌더라면 조지 워싱턴의 전쟁 방식은 틀림 없이 매우 달랐을 것이다. 이동의 속도와 비용은 다른 여러 방면의 사회적 과정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전신과 전화의 발명,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발명은 20세기를 그 이전의 세기로부터 멀리 떨구어 놓는 역할을 하였다. 21세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동성의 속도와 범위를 다시 한 번 갱신하는 기술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요즘 우리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약술하다시피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일종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이었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게 된 연유는 커뮤니케이션 주체인 인간이 이동 중에 있으면서도 (mobile)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겠는데, 사실

# A Study on Multiple Mobility

## 1 What is mobility?

The world has been experiencing the dramatic appearance of mobile communication during the past 10 years. The appearance could not but be called dramatic because the speed, scope and supply of mobile media are dramatic. Experiencing the dramatic expansion of mobile communications, we are noting a new possibility for mobile media. In fact, all communication media is not irrelevant to mobility. Mobility will be defined as the mobility of communication subjects or their mobile abilities and, in most cases, humans are the subjects. Humans have relied on oral communication throughout most of their existence, and the invention of alphabets of written language, which occurred about six thousand years ago, opened a new era, laying a foundation on which messages and their speakers cannot be separated. Of course, there are cases where speakers and their messages are separated by their methods of oral delivery, but oral communication has always had clear restrictions on the accuracy of the delivered message or the speakers' memory capacity or on their identity to the originals. Basically, the condition of human communication was that the subjects and their messages should be at the same space at the same time.

The appearance of written alphabets separated

the subjects and their messages, developed storage by writing instead of storage by memory and promoted analytic thinking. Detailed discussion and analysis of these do not need to be repeated here.<sup>1</sup> The invention of written alphabets, however, has left a great effect on the mobility of humans, among other things. The use of written alphabets systemized knowledge and provided technologies for humans to move long distances systematically and also a basis for humans to keep knowledge and technologies in writing. Moving humans contrived a postal system by which they could communicate with others far away while they are residing in a certain place, bound multitudes of people by a message, and finally designed mass media systems which effect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 or a country.<sup>2</sup>

What does this suggest for us? We can find great meaning from the possibility of physical mobility or from the mechanism where mobility causes social change. Doubtlessly, the two prevailing technical areas which have expanded physical mobility are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It took three days for Washington who led the United States in the Revolutionary War to move from New York to Philadelphia. Now, it takes about two hours to travel the distance. If Washington could

(80일간의 세계일주)에 등장하는 주인공도 여행 중에 계속 통신 수단을 활용하였으니 그 역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에 살았던 셈이다. 인간이 즉각적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 수단을 휴대하게 되었다는 점이 그 이전과 구별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휴대성(portability)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바일과는 약간 의미가 구별된다. 다시 말하면 휴대성이 시작됨에 따라 이동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동성을 신장시킨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통신 네트워크의 편재성(ubiquity)이다. 이동전화의 경우라도 보더라도 기지국이 미리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무용지물이다. CDMA 인가 혹은 GSM 인가의 경우에서처럼 기술적 방식만 달라도 역시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따라서 휴대성은 기술적 기반의 편재와 항상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인터넷의 경우 역시 이동성을 극대화 하는 통신 기술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휴대전화가 휴대성을 기반으로 이동성을 높이는 기술이라면 인터넷은 편재성을 기반으로 이동성을 높여주는 기술이다. 또 메시지 저장 및 전송의 용량 등에서도 두 매체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기술은 결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이미 여러 형태로 실현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동성을 더욱 고양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따라서 이동성을 높이는 매체로 쉽사리 휴대전화 만을 상상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두 가지 측면, 즉 모든 매체는 이동성의 신장을 가져왔다는 점, 그리고 최근의 두 매체인 휴대전화와 인터넷은 특히 그 속도와 범위에서 극적인 진전을 보였다는 점을 신중하게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2 이동성과 사회적 관계

그렇다면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의한 극적인 이동성의 확장을 통해 어떤 일이 생겼다는 말인가? 이동성을 근대성의 요소로 파악한 러너의 통찰을 고려한다면, 인간이 언제 어떻게 어떤 이유로 이동하는가, 또는 어떤 속도로 이동하는가는 사회의 근대성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러너에 따르면 근대적 인간은 이동성이 높으며 이동 지향적이기조차 하다.<sup>3</sup> 물론 러너의 고찰은 오랜 유목의 역사를 지닌 인간의 선사적 경험을 염두에 두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정주 이후 농업에 기반을 마련한 정주형 촌락 사회로부터 산업화에 의한 이농 및 이로 인한 도시화 현상에 초점을 맞춘 관찰이다.

이동이란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달리 한 개체의 물리적 공간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개체의 이동은 해당 개체가 기존의 환경과 형성해 온 모든 종류의 관계로부터의 이탈 혹은 변형을 의미할 수도 있고, 새로 편입되는 물리적 공간에서 사회적 관

계를 새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동이란 관계의 변형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의 보편적인 사례로 신분의 변형을 지적할 수 있다. 농민의 신분에서 도시 임노동자로의 신분 변화는 처음에는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도시라는 공간으로의 이동에 의해 촉발되고 다음으로는 들판에서 공장으로의 작업장의 변경에 의해 비롯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이동은 집합적인 차원에서는 노동계급의 형성과 부르주아의 탄생을 야기하고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따른 계급사회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자본제 사회의 발전은 이농이라고 하는 사회적 이동 현상을 급격히 촉진하여 이후 산업사회의 기본 성격을 규정하게 된다. 인간의 이주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이루어져 왔지만, 전쟁과 같은 인위적 재난이나 자연재해에 의한 이주를 제외한 가장 보편적인 이주는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것이다. 노동이주는 또한 세계화 과정의 중요한 한 기둥이기도 하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동성이 단지 공간의 변경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의 변형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동성의 증가로 인해 가능해진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있는가? 이동성을 강화해 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발달과 이의 사용 덕분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현상들을 좀 더 큰 범위에서 파악해 보려는 노력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한 가지 예로 우리는 아마도 글로벌 시티의 등장에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007년은 전 세계의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도시에서 거주하는 원년이 된다.<sup>4</sup> 도시로의 이동은 단지 북적거리는 공간으로의 이주가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사회적 그물망 속으로 진입함을 의미한다. 글로벌 시티의 등장은 모바일 라이프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이며, 이것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배경이자 결과이다. 글로벌 시티의 등장 원인을 물론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서만 찾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보다는 도시의 변형이라는 거대 사회 과정에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를 파악해 보려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시도를 위해 이동성의 개념을 다차원적으로 고찰해 보고, 각각의 측면에서 어떤 점들이 주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있다.

## 3 이동성의 증가와 관계의 확장, 그리고 권력의 구체화

매클루언(McLuhan)에 의하면 미디어는 인간 감각의 확장이다. 미디어는 인간의 시각, 청각, 촉각 등 감각 능력을 신장하기 때문에 감각을 확장해 주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 결과 인간은 미디어의 특성에 의존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바 이어서를 가지게 된다.<sup>5</sup> 시각적 미디어가 중요한 정보원으로

have moved at the speed available now, his method of waging the war would have been very different. The speed and expense of moving have fundamentally affected social processes in various ways. The invention of the telegram, telephone, radio and television have all played a role in separating the 20th century from all previous centuries. At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we again experienced new technology, renewing the new speed and scope of mobility, which we call 'mobile communication'. However, all communication is a kind of mobile communication.

It came to be called 'mobile communication' because humans who are the subjects of communication can communicate while they are mobile. In fact, the hero of 80 Day World Travel continually used communication methods, so it can be said that he lived in an age of mobile communication. A feature which makes humans different from previous times is that they can now carry communication devices by which they can communicate at any time. This is related to portability, so it is a little different in meaning. In other words, as communication devices became portable, the mobility of communication became greater. An important condition, the ubiquity of the communication network, developed. Where there are no working relay stations, mobile telephone devices are useless. If the technical methods for communication such as CDMA or GSM are different, the communication devices are useless. Therefore, the portability of communication devices is conditioned to always go with the ubiquity of technical foundation. Similarly,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 Internet is also communication technology which maximizes mobility. The portable telephone is technology which enhances mobility based on portability while the Internet is technology which enhances mobility based on ubiquity. These two media are different in their message storage and transmission volume. However, these two technologies tend to be combined, and this tendency is realized in various forms, thus resulting in the effect of enhancing mobility. Therefore, we should not imagine the portable telephone alone when it comes to a

medium to enhance mobility. We should have two sides in view. One is that all media developed mobility, and the other is that portable telephones and the Internet, especially, made dramatic developments in their speed and scope.

## 2 Mobility and Its Relationship with Society

Then, what happened through the dramatic development of mobility by portable telephone and Internet? Considering the insight of Lerner who grasped mobility as an element of modernity, it can be said that when, how, why and how fast humans move are elements which greatly influence the modernity of society. According to Lerner, modernistic humans are highly mobile and even mobility-oriented.<sup>3</sup> Of course, Lerner's thought does not consider prehistoric experiences of humans with a long nomadic history. Rather, it focused on the discretion of people from a stationery village society which had a foundation in farming due to industrialization and on the urbanization phenomena thereby.

Mobility means moving from one place to another, not just a change of physical space by an object. The mobility of an object can mean discretion or change from all kinds of relations which the object has formed with the existing environment, or a start of social relation in a physical space into which it is incorporated. Therefore, mobility means a change of relation. A change of identity can be pointed at as a common example of this process. The change of identity from a farmer to an urban worker was triggered by the transference from the space of farm village to the space of a city, and by the change of work place from the field to the factory. Such changes to mobility formed the labor class, gave birth to bourgeois, and brought the development of the class society following capitalistic modernization. The development of a capitalistic society drastically prompted a social mobile phenomenon - giving up farming, defining a basic character of the following industrial society. Movement of humans has occurred for various reasons, but the most common movement was to



등장함에 따라 인간의 시청각적 바이어스는 증가한다. 매클루언은 미디어를 통한 지각의 측면에 지나친 관심을 보인 것이 분명하다. 미디어는 인간의 지각 창구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욕구와 희망을 실현하기도 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미디어가 각자의 특성에 따라 바이어스를 조장한다면 인간은 자신의 용도에 따라 미디어의 모양과 적용을 결정하기도 한다. 같은 미디어라도 사용되는 사회의 특성에 따라, 혹은 사용하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기능과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좋은 예이다.

이동성의 증가란 행위 주체로서의 인간으로 하여금 공간구축을 극복하는 능력을 더 많이 가지게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공간적 구축의 감소가 물리적 이동 기능성의 확장이라는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간의 의미에 대해 주목할 필요를 다시금 느끼게 된다. 공간(space) 개념은 시간과 더불어 매우 오래되고 다의적인 개념이고 여러 각도에서 사고의 대상이 되어 왔다. 도대체 공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공간을 다른 무엇보다도 ‘권력이 구체화 되는 방식’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간이란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은 ‘빈’ 상태를 내포하기도 하고, 동시에 – 역설적으로 – 무엇인가 들어 차 있는 장소를 말하기도 한다. 예컨대 흔히 쓰는 말로 문화공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곳에서 문화적이라고 부를만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시한다.

권력은 항상 공간을 구성하는 원천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는 시공간의 구성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 달라진다는 점과 그 이유는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권력관계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논의한 바가 있고, 또 이러한 현상은 기술에 의한 세대의 구성을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sup>6</sup> 이러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한 확신을 느끼고 있다.

이동성의 의미가 반드시 몸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간을 관계로 보고 관계를 권력의 구체화로 본다면, 이동성에서 물리적 측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다. 예컨대 물리적으로 공존하는 공간에서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상대는 매우 한정적이다.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의 교회의 목회자들도 한 번 집회에서 몇 만 명의 신도들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방송의 등장은 수억 혹은 수십억을 동시에 감당하는 일방적 동시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역시 상호작용적 관계란 항

Is there a new social relation made possible by the increase of mobility? How can we try to grasp in broader scope the new phenomena that we are experiencing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media which strengthened mobility and the use of it?

seek jobs except for transferences due to man-made or natural disasters. This is another important pillar of globalization which is given by labor migration.

From this, we can see that mobility is a change of a social relation beyond just a change of space. Then, is there a new social relation made possible by the increase of mobility? How can we try to grasp in broader scope the new phenomena that we are experiencing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media which strengthened mobility and the use of it? As one example, we may note the appearance of a global city. The year of 2007 will be the original year when more than half of the entire human population is living in cities.<sup>4</sup> Migration to cities is not just a movement to bustling cities, but an entry into a totally different kind of social network. The appearance of a global city is a phenomenon which is taking place concurrently with mobile life, and this is the background and result of mobile communication. Of course, we cannot find the cause of the appearance of the global city only in mobile communication. Instead, we can try to grasp the meaning of mobile communication in the process of a mega society - a change of c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concept of mobility in a multiple dimension through this trial and to present issues about important points to be considered on each side.

### 3 Increase of Mobility and Extension of Its Relation, and Solidifying of Power

According to McLuhan, media are the extension of human senses. Since media extend humans' sensing abilities such as visual, hearing, and touching senses, they play the role of extending human senses.<sup>5</sup> As a result, humans came to be biased from viewing the world by relying on media. As visual media appears as an important information source, humans' visual and hearing biases increase. It is clear that McLuhan showed excessive interest in the visual aspect of media. Media are the window of humans' perception, but humans play their role and perform their function through media, realize their desire and hope, and establish new relationships or maintain their existing relationships.

Media adjust biases depending on their characteristics while humans decide the form and application of media depending on their uses. A good example is that the same media bring different functions and effects depending up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ety that is used or up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s who use media.

The increase of mobility means that humans, as the subject of action, come to have more abilities to overcome space restrictions. However, the decrease of space restrictions does not appear only as the extension of physical mobile possibility. Here, we come to feel again that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meaning of space. The concept of space is a very old and multiple-meaning concept together with time and has become an object of thought with various angles. What is space then? I believe that space should be grasped in 'a manner by which power is solidified' Space implies an empty state where no power operates, and at the same time, ironically, a space which is filled with something. Cultural space is one example. This implies that an action or actions that are cultural are being done there.

Power always operates as an original factor which composes space. I have discussed that the composition of time and space is varied by new technology because new technology makes a new power relationship possible and claimed that these phenomena appear through the composition of an age of technology (Sin-Dong Kim, 2001; 2004). I have not changed this thought. Rather, I am feeling more confidence in that.

Mobility does not necessarily mean body movement. If space is viewed as a relation and a relation as the concretion of power, the gravity of the physical side of mobility decreases. For example, the communication counterpart that a person can have in a physically coexistent space is very limited. It may not be easy for ministers of large churches in Korea to communicate with tens of thousands of attendees in an assembly. Broadcast has realized a unilateral concurrent communication type for

상 한 번에 하나가 기본이다. 인간의 육체적 한계 때문이다. 그런데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와 좀 다른 상황이 가능하다. 나는 언젠가 한꺼번에 열 개 가량의 메신저 창을 띄워 놓고 음악을 들으며 내가 시킨 파일을 편집하고 있는 학생을 본 적이 있다. 무심히 보고 지나쳤지만, 나중에 생각해 볼수록 신기한 점이 있었다. 여러 사람과의 동시적 상호작용. 즉 보통의 물리적 대면공간에서는 실현할 수 없는 다중적 관계가 다른 기술 기반 위에서 가능해진 것이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혼자 ‘고립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크게 잘 못된 생각이다. 채팅과 메신저, 이메일, 그 밖의 무수한 클럽 사이트, 블로그 등등을 멀티태스킹하는 오늘날의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이용자는 사실상 인간의 역사에서 최초로 다차원적 상호작용을 동시에 수행하는 주체가 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권력의 작용 또한 여러 방향으로 구체화 되는 양상을 보인다. 멀티 커뮤니케이션에 걸려 있는 주체는 관계와 관계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공간의 제약을 뛰어 넘는 것이다.

이동성은 인간의 생래적 특질이다. 인간을 動物이라고 하는 이유를 보면 명백하다. 우리는 움직임으로써 사는 존재들이다. 인간의 움직임에 획기적 도약이 이루어진 시기가 몇 차례 있었는데, 특히 산업혁명이 그 가운데 하나였다. 19세기 초의 시인 쿨리지는 인간의 움직임에 인공의 힘이 가해짐으로써 자연적 움직임을 능가하는 현상을 목도하면서 그 경이를 시로 표현한 바 있다.<sup>7</sup>

Keep moving! Steam, or Gas, or Stage,  
Hold, cabin, steerage, hencoop's cage –  
Tour, Journey, Voyage, Lounge, Ride, Walk,  
Skim, Sketch, Excursion, Travel-talk –  
For move you must! 'Tis now the rage,  
The law and fashion of the age.

기계동력을 이용한 이동성의 획기적 증대를 시대의 법칙이자 유행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움직이고 움직이는 산업사회의 인간 군상을 시인은 이렇게 보았다. 물리적 이동 속도의 획기적 변화는 과연 신기한 현상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동은 기존의 관계와의 단절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다. 뮤지컬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을 보면 이동이 동반하는 영원한 이별과 단절의 아픔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다. 애인을 따라 시베리아로 떠나는 딸을 전송하기 위해 별관에 있는 마을의 간이역에 나란히 앉아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부녀는 기약 없는 이별, 거의 마지막이 될 것을 서로 예상하면서도 편지를 보내라고 말하는 이별



10개도 넘는 창을 동시에 열어 놓고 일을 하는 학생  
A student who is working with over 10 windows  
at the same time

hundreds or thousands or millions at the same time. However, basically one mutual operational relation always exists at one time. This is a result of humans' physical limitations. However, a person who is sitting in front of a computer monitor is in a different situation. I have seen a student who opened approximately ten windows at the same time on his computer monitor, listening to music and editing a file. I didn't pay much attention then, but it was intriguing as I thought of him again later. He was having multiple interaction with other people. Namely, multiple relations which can not be realized in a common physical face-to-face space are possible based on other technology. To think that a person in front of a computer may be doing something alone is totally wrong. Computer communication users today who do multi-tasks by working on club sites and blogs, chatting, doing messenger and email communications are, in fact, subjects doing multi-dimensional interaction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and in the process, the operation of power becomes concrete in various directions. Multi-communication subjects move freely from one relation to another, leaping beyond the limitation of space.

Mobility is a human's biological characteristic. It is clear when looking at why humans are called animals. We humans are beings living with movement. There were a few periods when men made epochal leaps in movement, especially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Looking at the phenomena which surpass natural movement by adding artificial force to human movements, Coolage, an early 19th century poet, expressed his wonder in a poem.<sup>7</sup>

Keep moving! Steam, or Gas, or Stage,  
Hold, cabin, steerage, hencoop's cage –  
Tour, Journey, Voyage, Lounge, Ride, Walk,  
Skim, Sketch, Excursion, Travel-talk –  
For move you must! 'Tis now the rage,  
The law and fashion of the age.

He thought that the epochal increase of mobility

by using mechanical power was a rule and fashion of the age. The poet viewed the picture of humans in the period of the moving industrial society as such. The epochal change of physical moving speed must have really been a wonderful phenomenon. However, mobility should still be severed with the existing relations. Looking at a musical movie, *Fiddler on the Roof*, we can see a scene expressing the pain of permanent separation and disconnection accompanied by mobility. The father and daughter are sitting side by side, waiting for the train at a simple village train stop on a plain. The father, who is seeing the daughter off as she leaves for Siberia, dares to make the separation without any hope to meet again. They just tell each other to write letters while feeling that it would be their last meeting. This was the age of mobility when the separation could not be made without daring. It was really a different age from that of today which is armed with an electronic network. Today's separation is one chosen by us. Today, we can find and contact someone whenever we wish. Now, the meaning of separation has changed.

#### 4 Political Mobility

Mobility is an important concept in political circles. The concept of political mobility, which is better recognized as political mobilization, focuses on how well people are mobilized so as to accomplish political objectives. Political mobilization can be divided into forced mobilization and voluntary mobilization. In the case of voluntary mobilization, especially, the popular tendency and the participatory democratic tendency should be compared. The types of mobilization vary, ranging from street mobilization to a high voting rate. What is theoretically desirable is a political mobilization, in which well-educated voters make wise judgments collectively through their votes. As a society becomes more stabilize as a democracy, there are more limitations on quiet mobilizations through votes due to the indifference of people and low voting rates. On the other hand, if the political situation is rather instable and people maintain their sense of self-effect in a collective dimension, a high level of street mobilization is possible. One

을 감행(?)한다. 감행이 아니라면 실행할 수 없는 ‘이동’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전자적 네트워크로 무장된 오늘날과는 확실히 다른 시대이다. 지금의 이별은 선택하는 이별이다. 원하면 언제든 찾을 수 있고 연락할 수 있다. 이별의 의미가 달라진 것이다.

#### 4 정치적 이동성 (political mobility)

이동성은 정치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개념이다. 정치적 동원 (political mobilization)으로 더 잘 인식되고 있는 정치에서의 이동성 (political mobility) 개념은 정치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잘 동원되는가, 혹은 어떻게 동원되는가에 초점을 둔다. 정치적 동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크게 강제적 동원과 자발적 동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 특히 자발적 동원의 경우 대중주의적 경향과 참여민주주의적 경향을 대비해 볼 만하다. 동원의 양식도 거리동원에서부터 유권자의 높은 투표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론상 바람직하기로는 잘 배운 유권자가 항상 선거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집합적으로 내려주는 방식의 정치적 동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민주주의가 안정된 사회일수록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 때문에 사실 선거를 통한 조용한 동원은 한계가 있다. 반면 정치 상황이 다소 불안정한 국면이면서 국민들이 자기효능감을 집단적 차원에서 유지하는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거리 동원이 가능하다. 한국 사회가 지난 수십년 사이에 경험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거리 동원은 좋은 사례이다.

정치적 이동성을 동원의 차원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다. 사회적 이동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동성을 우리는 정치권력의 쟁취과정에 투입되는 새로운 행위자들의 진입가능성이나 이들이 정치과정에서 생존하고 공급하는 현상을 정치적 이동성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고 활발한 정치의 장일수록 정치적 이동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지나치게 높은 이동성은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고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개연성이 높다.

한국은 지난 반 세기 동안 비교적 높은 정치적 동원과 이동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면서도 지난 20년 남짓의 민주화 발전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정치적 플랫폼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다.<sup>8</sup> 식민지와 미군정, 전쟁과 군사독재 등을 연속적으로 경험한 사회의 변신으로 믿기에는 경이로울 정도로 한국의 정치적 안정은 견고한 바탕 위에 서는 듯이 보인다. 아시아의 정치선진국으로 간판 역할을 해 온 일본보다

도 어떤 면에서는 더 선진적인 면모가 있다. 일당 독재나 다름 없는 독특한 민주주의를 유지해 온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유권자들은 야당의 존재를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꼽는다. Asian Barometer가 실시한 최근의 서베이에 따르면 한국인의 88%가 권력경쟁에서 야당의 존재를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는 일본이 67%, 타이와 타이완이 각각 73% 정도의 응답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가 아닐 수 없다.<sup>9</sup>

한국인의 정치적 이동성은 혼란기의 성과성과 독재시대의 이념적 투쟁기를 거쳐 이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양당모델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뉴스위크의 분석이다. 식민지와 전쟁, 독재 등은 한국인과 한국 사회에 혹독한 시련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 정치의 장에서 모든 형태의 진입장벽을 걷어내 버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식민지로 전락한 국가에서 과거의 왕조나 귀족이 정당성과 지위를 유지할 공간은 없었으며, 정쟁으로 황폐화된 나라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대체로 헐벗고 굶주리기는 대소간 차이가 없었다. 최하층 계급으로부터 급상승한 군부엘리트와 고시를 통해 신분이동을 이룬 신흥 관료계층, 산업화의 과정에서 신흥부르조아로 이동한 사람들 등이 근대 한국의 상층부를 이루면서 사회적 이동성과 정치적 이동성에 장벽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범주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특성은 군사학교 출신의 독재적 대통령이나 상업고등학교 출신의 민주적 대통령이나 모두 사회의 평민으로부터 상층부로 이동하는 사례를 남김으로써 더욱 공고한 상징이 되었다. 또한 지역 분할과 독재와의 결탁에 의한 영남 패권주의가 한 동안 정치적 이동성을 저해하는 위협적 요인으로 정착하지 않을까 우려를 낳기도 했지만, 안정적인 정권교체의 경험은 한국들에게 정치적 확신을 부여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이동성의 유지 및 확장과 관련하여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네트워킹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 커뮤니티의 활동은 이른바 노사모를 필두로 이후 수 많은 ‘사모’ 클럽을 양산 하였으며, 유권자들을 정치적 참여의 다양한 형태로 끌어내는데 기여하였다.<sup>10</sup>

#### 5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 (capital and labor mobility)

2006년 중국에 유입된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good example is the relatively high level of street mobilization that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during the past several decades.

It is improper to view political mobility as a dimension of mobilization. Similar to social mobilization, it is possible to view political mobility as the possibility of new actors' input into the course of winning a politically powerful position or to view the phenomena of their survival and promotion in a political process as political mobility. Since everyone is free to come and go, political mobility can be high. Of course,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excessively high mobility can threaten political stability and decrease specialty.

Korea has maintained a relatively high political mobilization rate and mobility for half of the past century. Meanwhile, Korea has been successful in making quite a stable political platform while passing through the democratic development period over 20 years.<sup>8</sup> It seems that the political stability of Korea is standing on a firm foundation, which is unbelievable when considering that Korea experienced a series of social reforms such as the Japanese colonial reign, the military rul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military dictatorship. Korea is somewhat more advanced in some aspects than Japan which has played the role of the political front-runner in Asia. Unlike Japan, which has maintained a unique democracy not very different from one party dictatorship, Korean voters deem the existence of opposition parties as an essential factor.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by Asian Barometer, 88% of Korean people recognize that opposition parties are necessary in power struggles while 67% of Japanese people and 73% of Taiwanese people recognize this, showing that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the two aforementioned countries.<sup>9</sup>

According to a recent news analysis, the political mobility of Korea has been developing as a relatively stable bipartisan model, passing through a period of confusion and a period of ideological struggles in an age of dictatorship. It is true that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dictatorship, etc. have brought unique trials to Koreans and Korean society. On the other hand, they resulted in removing all types of entry barriers in the scene of Korean politics. There was no space for the royal or noble families to get justice done and occupy a powerful position in the country which fell to the position of colony, and there was no difference for the rich and the poor to live in poverty in the desolated country. The military elites who drastically rose to high ranks from the lowest class and the new bureaucratic class who acquired their new identity by passing state examinations, and the people who transferred to the new bourgeois class began to form the upper class of Korea, thus giving no social category which can be an obstacle to social mobility and political mobility.

This feature made it possible that one of the military elite became a dictatorial president of Korea and a graduate from a commercial high school became a democratic president of Korea, and people from the working class moved to the upper class of society, forming a solid symbol. In addition, the Yeongnam region's hegemony by the combination of regional divisions and dictatorship caused the concern that it might be settled as a threatening factor to hamper political mobility for a while, but the stable power changes contributed to the political confidence of Korean people.

By the way, we cannot but note the political networking based on the Internet and mobile communic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maintenance and extension of the political mobility in Korean society. With the advent of 'Rhosamo' (Association of Lovers of Rho), community activities participating in politics through the Internet produced lots of 'Lovers Clubs,' contributing voters to a variety of typ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politics.<sup>10</sup>

## 5 Capital and Labor Mobility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troduced into China in 2006 were 6,300 million dollars, a drastically higher rate than 4,100 million dollars in 2000 and 340 million dollars in 1990.<sup>11</sup> Most foreign invest-

Investment)는 63억 달러로 2000년의 41억 달러, 그리고 1990년의 3억 4천만 달러에 비해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sup>11</sup>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대부분은 시설투자자와 같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이며, 이러한 성격상 중국 내 노동력의 이동을 촉진하고 있다. 자본의 이동성이 노동의 이동성을 유인하는 현상인 셈이다. 2000년 센서스에 따르면 중국 내 노동이주인구는 1억 4천 4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아마 1억 5천만 내지 2억 명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남쪽의 섬유공장으로 몰리고 남성노동자들은 동북의 중화학공업으로 몰리는 경향이다. 저가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한국, 대만 등의 중소기업체가 중국으로 이전하는 현상도 일반적 추세가 되고 있다. 노동의 이주가 어려우면 자본이 이주하는 것으로 노동력 공급의 결손을 보충한다. 자본의 이동성(capital mobility)과 노동의 이동성(labor mobility)는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촉진하는 형식으로 초국적 수준에서 결합의 형태와 강도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중국만의 경우가 아니다.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역시 증가하는 자본과 노동의 유입이 새로운 형태의 경제 사회 구성을 자극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5년 자국 내 거주하는 임시방문노동자 및 그 가족들의 통계를 낸 적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인도(194,611명), 멕시코(169,786명), 영국(156,635명), 일본(149,904명), 캐나다(144,462명), 독일(78,564명), 프랑스(61,166명), 한국(41,101명), 베네수엘라(33,709명), 브라질(31,850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sup>12</sup> 임시방문노동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주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를 두고 정치적 논란에 싸여 있는데,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임시방문노동자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들 임시방문노동자들은 저가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저개발 사회로부터 유입된 노동력은 아니다. 많은 경우 전문 기술자들이거나 미국 내에서 고학력을 취득한 두뇌 인력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 및 산업에 기여할 잠재적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그러나 이들 자원은 그들의 모국이나 혹은 지구 상의 다른 사회에서도 수요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이민허용반대자들이 주장하는 우려 사항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례에서 나타나듯 노동의 이동성은 특히 고급 인력의 경우 더욱 날카롭게 부상하는 특성이다. 사실 이러한 경향은 어제 오늘 비릇된 일은 아니지만, 인적 자원에 대한 공급과 수요의 글로벌화에 따른 현상으로 깊이 고려해야 할 이슈이다. 이른바 두뇌유출(brain drain)로 알려지고 있는 현상을 넘어서

서 최고급의 브레인인 아니라도 쉽게 보다 나은 노동 환경을 선택할 여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이에 따라 노동의 이동성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을 떠받치는 토대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이다. 자본은 통신망을 통해 24시간 지구상의 시장들을 여행한다.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 역시 아프리카의 어느 노동자의 손에 쥐어진 싸구려 휴대전화로부터 글로벌 코퍼레이션의 인사담당자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연결된 통신망에 의존하고 있다.

## 6 경험과 이동성(mobility and experience)

제레미 리프킨은 소유의 시대가 끝나고 경험의 가치가 이를 대체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선언한다.<sup>13</sup> 여러가지 경제적 사회적 지표를 근거로 그가 제시하는 경험의 시대상은 매우 설득력 있는 미래 예측이자 분석이다. 소유와 경험의 무게 이동을 보여주는 작은 사례로 한국의 콘도미니엄 사업을 볼 수 있다. 골프의 경우와는 달리 콘도 회원권은 투자의 가치가 제한된 상품으로 인식됨에 따라 가격이 더욱 떨어지고 급기야는 소유 대상으로서의 매력을 잃고 말았다. 굳이 회원권을 갖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굳이 콘도가 아니더라도 대안은 있으며, 더구나 같거나 비슷한 장소에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휴가나 여행의 의미가 매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콘도의 소유는 이익이 되기 보다는 짐이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서 특히 의미심장한 요인은 ‘누가 같은 장소에 다시 가고 싶어한다는 말인가?’로 압축될 수 있는 질문이다. 같은 장소에 다시 가고 싶은 사람이 나 그런 경우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좋은 장소에는 누구나 다시 가고 싶은 법이다. 요컨대 같은 비용으로 사람들은 보통 색다른 풍부한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 오늘 날의 경향이다. 이동성의 증가와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 사이에는 부적인 관계가 있고 양자는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경향도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 다양한 곳을 경험하기 위해 한 두 곳을 소유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보다는 여러 곳을 단 한 번 만이라도 경험하는 비용을 쓰는데 표를 던지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리프킨이 주장하는 경험 가치 우위의 시대는 실상 이동성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소유가 경험으로 바뀌는 기제는 시장이 네트워크에 길을 내주는 현상과 함께 이루어지며, 물질적 생산보다는 문화적 생산의 가치가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전세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초국적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기업들은 각 지의 문화적 자원들을 경험재로 재생산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경험의

ments into China were in fixed assets such as facility investments, accelerating the migration of labor power. Capital mobility induces labor mobility. According to a census in 2000, the labor migration population in China reached 140 million people, and it is assumed that the population is between 150 million and 200 million. Female laborers tend to gather in textile factories in the southern China, and male laborers in heavy chemical factories in the northeastern part of China. In order to secure low cost labor power,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of Japan, Korea, and Taiwan increasingly move to China. Where labor migration is difficult, capitals transfer, complementing the shortage of labor power supply. Capital mobility and labor mobility complement and promote each other, enhancing the type and intensity of combination at a global level.

This phenomenon is not occurring just in China. Most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experiencing something similar, and increasing capital and the influx of labor power in Korea are stimulating a new type of economic society. In 2005, America produced statistics of temporary visiting laborers and their families residing in America. The statistics showed 194,611 from India, 169,786 from Mexico, 156,636 from England, 149,904 from Japan, 144,462 from Canada, 78,564 from Germany, 61,166 from France, 41,101 from Korea, 33,709 from Venezuela, and 31,850 from Brazil (The Wall Street Journal Asia, 2007, p.16). The United States is in a political controversy about whether to give legal immigration rights to temporary visiting laborers. Whatever the result,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temporary visiting laborers will increase. Those temporary visiting laborers are not the labor force which is introduced from underdeveloped countries based on low labor costs. Since most of them are highly educated in America or professionals, they are human resources who have a high potential value to contribute to American society and industry. However, demand for such resources is high in their home country or other societies in the world. Those opposing their immigration to America fear that they might

not settle stably in America. As shown in these examples, labor mobility has a characteristic that high class manpower, especially, is in high demand. This tendency did not occur yesterday or today, but it should be recognized as a phenomenon following the globalization of the demand and supply of human resources.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they will choose a better working environment beyond the phenomenon that is known as 'brain drain' and, also, the labor mobility increases accordingly.

The foundation which supports capital and labor mobility is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s). Capital travels to global markets 24 hours a day through networks. The demand and supply for labor power also depend upon tightly connected networks ranging from cheap cellular phone devices held in the hand of a laborer in Africa to the office of a manager of human resources at a global corporation.

## 6 Mobility and Experience

Jeremy Rifkin declares that the age of ownership has ended and a new age has replaced it with the value of experience.<sup>13</sup> The picture of the age of experience that he presents based on various economic and social indexes is a very persuading prediction and analysis of future. A small case which shows the weight transfer of ownership and experience can be seen in the condominium business of Korea. Unlike golf, condominium membership is recognized as a product whose investment value is limited; it decreases in value, resulting in losing its attractiveness as an object of ownership. We do not necessarily need to have a membership to use good condominiums or other alternatives. Moreover, when repeated visits to the place or similar places make ownership of a condominium lose its attractiveness, the ownership can be a burden rather than a profit. An especially significant factor can be summarized as a question: Who wants to go to the same place again and again? This does not mean that there are no people who want to go to a place again and again. Everyone wants to visit a good place again and again. People are inclined to have



경제가 소유의 경제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문화적 체험이 물질적 체험을 대체 혹은 압도하는 현상을 우리는 한국의 이른바 '된장녀' 현상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된장녀 현상이란 2006년 혹은 2007년 즈음에 한국에서 과시적 소비에 몰두하는 젊은 여성들을 비하하는 사회적 꼬리 달기로 등장한 신조어이다. 나쁘게는 명품과 사치, 과시 등에 가치관이 오염되어 돈 있는 남자친구를 이용해서 값비싼 옷과 보석 등으로 감고 다니며, 이를 가치의 최우선에 두는 한심한 여자라는 해석에서부터, 외모와 패션, 문화와 여유에 보다 신경을 쓰는 신세대 소비자라는 긍정적 해석까지가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그 모든 요소들이 모두 포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특히 일반에 많이 유포된 이 개념은 사실상 긍정적, 혹은 중립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경제적 궁핍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당연히 경제적 부의 축적과 생존 조건의 안정적 확보 등에 우선적 가치를 두게 되며 따라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이러한 노력을 정당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모랄에 동의한다. 개인의 삶을 '바람직한 것으로 규정하는 사회 규범'이 궁핍의 탈출을 위한 모든 노력을 미화하고 장려하는 것에 맞춰지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모든 산업사회가 대체로 공통적으로 채택하는 개념이다. 영어의 industrial 과 industrious 가 유사한 어원을 가지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재산을 축적하는 일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내핍과 성실은 영구적 덕목의 반열에 오른다. 반면에 과시적 소비나 혹은 필요(need)에 의한 소비가 아니라 욕구(want)에 의한 소비는 바람직하지 않거나 심하게는 반사회적인 것이기까지 하다. 예컨대 5천원의 비용으로 설렁탕을 먹고 2천원을 들여 커피를 마시거나 혹은 200원으로 자판기 커피를 마시거나, 혹은 (커피란 원래 몸에 좋은 것도 아니므로) 그냥 물을 마시고 양치질을 하거나 하면 적당하거나 혹은 바람직한 소비가 된다. 반면에 누군가 2천원을 지불하고 감밥 한 줄로 점심을 먹고 4천원 정도 하는 스타벅스 커피를 한 잔 한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나 '정신 나간' 과시적 소비, 혹은 최소한 비합리적 소비로 규정되고, 이러한 일을 거리낌 없이 일삼는 부류가 '된장녀'의 낙인을 얻는 것이 된다. 물질적 소비의 합리성 및 경제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러한 해석과 평가는 전통적 규범에 제대로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질적 안정의 시대에 성장한 세대는 그렇지 않은 세대와는 소비의 합리성을 구성하는 기준이 매우 다르다. 불과 반세기 전에 한국 사회는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렸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비만과 성인병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 5천원짜리 설렁탕 보다는 2천원 정도로 감밥을 먹거나 혹은 아



된장녀, 조선일보 2006년 8월 5일

Doenjang Nyeo, Chosun Ilbo, August 5, 2006

- 1 고급샴푸(Premium shampoo)
- 2 테이크아웃 커피(Take-out coffee)
- 3 명품백(Luxury handbag)
- 4 가방에 들어가지 않는 전공서적(Books that never put into her bag)
- 5 손에서 놓지 않는 핸드폰(Mobile phone she never set seperated)



different and unusual experiences.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rease of mobility and the expense of mobility, and both tend to rise together. More people would like to visit several places on the same expense rather than to own one or two places so as to have more diversified experiences.

This implies that the age of the value of experience which Rifkin claims, is, in fact, closely related to the increase of mobility. The mechanism that ownership changes to experience is formed with the phenomenon that the market paves the way for the network, and the value of cultural production grows faster than that of material production. Global media communication enterprises which form the network around the world are focused on reproducing cultural resources as experiencing materials. The economy of experience overpowers the economy of ownership. We can see in the so-called 'Doenjang Nyeo (Bean Paste Lady),' the phenomenon in which cultural experiences replace or overpower material experiences. 'Bean Paste Lady' is a newly coined phrase which disparages young women absorbed in excessive expenditures in 2006 and 2007 in Korea. To speak ill of them, the new phrase means young women whose sense of value is polluted and who are extravagant and adorn themselves with expensive jewelry and dresses bought with money that they coaxed out of wealthy boyfriends. A high priority is placed these values. On the other hand, they can be well spoken of in that they are a new consumer generation who puts more interest in their outward appearance, fashion, and flexible living style. This can be an exclusive concept embracing all the factors. This widely spread concept, especially to the public through Internet media, includes lots of elements which can be observed and evaluated positively or neutrally. People who live in material poverty naturally put a high value on the accumulation of material wealth and the stable establishment of the survival condition. Thus, they strive for these conditions and agree with the social morality which accepts such efforts. The social norm which defines personal living as desirable living beautifies

Doenjang Nyeo(Bean Paste Lady) is a newly coined phrase...To speak ill of them, the new phrase means young women whose sense of value is polluted and who are extravagant and adorn themselves with expensive jewelry and dresses bought with money that they coaxed out of wealthy boyfriends.

에 점심은 생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질 나쁜 자판기 커피를 홀쩍이기 보다는 좀 더 분위기 나운 카페에서 막 끓인 원두커피를 취향에 따라 골라 마시며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혹은 어쩐지 이국적이고 고상하게 보이는 분위기에 잠시 젖어 잘나가는 전문직 흉내를 막연히 내 본다거나 하는 일이 우습거나 나쁘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스타벅스나 커피빈과 같은 글로벌 프랜차이즈 가게들은 단골의 개념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단골이란 같은 가게를 자주 이용하여 주인과 손님 사이에 친분이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외상 거래나 반복적 방문 등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종류의 소비 과정에서 단골의 성립과 유지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존속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장소에 있는 같은 가게를 가서 주인과 친분을 쌓아야만 단골이 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스타벅스나 던킨도우넛이나 혹은 이와 유사한 가게들을 가도, 그리고 굳이 주인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이 소비자가 지갑에 담고 다니는 회원카드가 단골의 신분을 증명해 준다. 단골이 누리는 덤이나 서비스도 보장해 주고, 아울러 같은 장소에 가야만 하는 공간적 구속도 매일 필요도 없다. 어느 스타벅스를 가든 나는 여전히 단골일 수 있다. 이동성이 제고되는 다른 한 장치인 셈이다. 또는 점점 더 많이 이동하는 인간들을 겨냥한 마케팅의 변화일 수 있다. 일단 스타벅스나 맥도널드를 알고 있으면 생소한 동네에 가서도 ‘고향의 맛’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고향’은 결국 나에게 친숙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이동성은 일상의 업무 조직이나 시간의 구성과 활용, 대인 관계 등에서도 변형을 야기하고 있다. 수많은 서류들이 폴더에 끼워져 사무실을 이동하는 대신 이메일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문서를 수발하던 인력은 줄어들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하는 대신 이메일과 휴대전화로 이를 대체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사무실 공간의 의미도 축소되어 이제는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모든 장소가 업무 공간인 반면 자신의 사무실이라도 네트워크로부터 차단되는 순간 업무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고 만다. 기차, 비행기, 공항, 스타벅스 등이 모두 이동하는 사무실이 되었다. 모바일 오피스의 시대인 것이다. 이른바 재택근무도 모바일 오피스의 일종이다. 일터를 집으로 잠시 (혹은 영구히) 옮겨 간 것이다.

## 7 무너지는 경계들

특정 공간에서 특정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가는 그 공간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달려 있다. 시간과 공간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sup>14</sup> 뒤르켐 이후 사회학, 인

류학, 사회심리학, 지리학 등에 관련한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러한 주장은 무리 없이 받아들여져 왔다. 물론 각각의 학자들이 모두 동일한 배경과 바탕에서 이 명제를 지지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여기서는 하비의 방식을 따라서 이 명제를 다음과 같이 좀 더 명확히 정의해 보자. 첫째, 시간과 공간이 사회적 구성체임을 주장한다고 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각각 인식이 실제와는 무관한 상상적 구성물이라는 것은 아니다. 하비에 의하면 시간과 공간은 우주에 포괄되는 것이며 물질적 존재를 총체적으로 추상하는 우주의 개념 내에 있게 된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은 근본적으로 물질적 실재의 부분이며, 실재를 인식하는 방식에 가깝다. 즉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그 자체가 고정 불변의 실재라기 보다는 실재하는 어떤 대상을 인간이 범주화하고 유형화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종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둘째, 시간과 공간은 객관적이다. 시간과 공간을 인식하고 정의하는 방식은 은유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으나,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이후에는 객관적 실재로서의 성격을 형성한다. 하비는 부르디외가 북아프리카의 카바일(Kabyle) 사회에서 사람과 행위를 별도의 장소와 시간에 묶어서 할당함으로써 어떻게 사회적 질서를 조직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예를 인용하며 시간과 공간의 사회적 조직화가 객관적인 사회적 사실로 존재하게 됨을 주장한다. 카바일 사회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시간과 장소의 구획에 따라 규정되는데 여기에는 권력의 배분과 간섭이 작용한다. 이와 동질적인 현상은 사실상 모든 사회에서 발견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여자가 밤늦게 나다니면 위험하다 (혹은 안 된다) 든지, 부엌은 남자들이 들락거릴 곳이 아니라 든지 하는 식으로 시간과 공간에 따라 성 역할을 규범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아가 사회적 행위의 규범화는 사회적 권력을 공간에 결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권력의 표출은 항상 공간의 독특한 구성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공간이 항상 사회적 권력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간의 재조직화는 사회적 권력이 표출되는 틀의 재조직화를 말하는 것이다.<sup>15</sup>

이 글을 통해 내가 시도하고자 했던 것은 이동성의 증가가 결국은 시간과 공간의 재조직화 방식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었다. 또 일상의 경험세계에서 역시 모바일 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이동성의 의미를 부각시켜보려 했다. 이동성의 개념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깊은 주목을 요구하는 이유는 인간의 모든 일들이 결국은 ‘공간의 구성’이라고 하는 권력의 상호작용으로 귀결되는 것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각 개인이나 집단이 체현하는 이동성

and promotes all efforts to exit out of poverty. This tendency is a concept which all industrial societies adopt in general. It is natural in the same context that the English terms 'industrial' and 'industrious' have a similar origin. Therefore, it is natural and desirable to save money, buy a house and land, and accumulate material riches. Austerity and faithfulness rise to the class of permanent virtues. On the other hand, showy consumption or consumption by want, not need, is not desirable or is even anti-social, to speak extremely of it. For instance, as consumers, we can buy a Seolleongtang for 5,000 won, a cup of coffee for 2,000 won, a cup of coffee from a vending machine for 200 won, or just drink a glass of water (since coffee is not necessarily good for our health). This is desirable consumption. On the other hand, if a lady pays 2,000 won for a roll of Kimbap for lunch or 4,000 won for a cup of Starbucks coffee, it is not desirable, and such a person can be called an extravagant 'Bean Paste Lady'. Such consumption is defined as extravagant, and such a lady is branded as a 'Bean Paste Lady'. Viewed from the point of rationality and economy, this understanding and evaluation are consistent with the traditional norm.

However, the generation raised in the age of material stability has a very different consumption rationality from other generations. Korean society was afflicted by poverty and hunger only a half century ago, but now many are suffering from obesity and adult diseases. It is not bad to eat a roll of Kimbap for 2,000 won rather than Seolleongtang for 5,000 won or even to skip lunch. There is no reason to blame a person if he or she is enjoying a nice time over a cup of Weondu coffee with friends in the good atmosphere of a café rather than sipping a cup of coffee taken from a vending machine or mimicking other people in a good atmosphere which is exotic and nice. We cannot blame such a person for what the person is doing. Global franchise stores like Starbucks or Coffee Bean fundamentally changed the concept of regular customers. A regular customer relationship or patronage means a relationship in which customers regularly visit and form friendships with

the owner of a store close enough to buy products on credit. In the course of all consumption,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patronage has survived in a common phenomenon. However, now people don't need to visit a store frequently to become a patron of the store by having a close friendship. Now, people with a membership card are treated as patrons of a store such as Starbucks and Dunkin Donuts without knowing the owner of the store. The membership card identifies the possessor as a patron and allows them to enjoy the benefits and services of a patron, so they don't need to visit a place frequently to become a patron of a store by being restricted to the place. They can still enjoy the benefits and services of a patron at any Starbucks. This is a device which raises mobility. This is a change of marketing, targeting people moving more and more. If you can locate a Starbucks or McDonald's wherever you go, you can 'enjoy the taste of your hometown.' 'Hometown' means something which is familiar to us and which can be trusted.

Mobility shows changes in the organization of daily activities, composition and use of time schedules, and human relationships on a more concrete dimension. E-mail letters are replacing paper documents moving around the office. Manpower which was in charge of handling documents decreases, and e-mail and cellular phone communications are increasingly replacing face-to-face encounters. The meaning of an office space is changing. Now, all the spaces which can have access to the Internet can be work spaces, but even the office loses its function, or its function deteriorates if the office is disconnected from the Internet. Spaces like trains, airplanes, airports, Starbucks, etc. now can be a mobile office. Now, we are living in the age of mobility. It is a kind of so-called home mobile office. The work place has moved temporarily or permanently to the home office.

## 7 Collapsing Boundaries

How a certain behavior is accepted in a certain space depends on how the space is socially composed. Time and space are composed socially.<sup>14</sup>



의 정도에 따라 공간을 구성하는 양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60년 전에 러너가 중동에서 발견했던 두 사회의 차이, 즉 전근대사회와 근대사회의 차이는 이동에 대한 관념의 차이였다.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근대와 탈근대의 차이 역시 근대가 기반을 두어 온 이동성의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은 아닌가? 견고한 모더니즘의 질서들, 예컨대 단란하고 안정적인 가족과 강력한 국가에 의한 안전의 보장이라든지 대량의 생산과 소비를 통한 지속적 성장과 같은 근대적 가치와 제도들은 새로운 도전을 앞에 두고 있다. 낡고 가부장적인 근대의 가족제도는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부터 높아지는 이혼율이나 혹은 동거의 증가 등의 형태로 변형되고 있다. 인간에게 가장 오래된 사회제도인 결혼과 가족의 내용과 형식이 바뀌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러한 변형이 가장 활발한 사회는 이동성이 고도화된 사회, 즉 정치적으로 개방적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높으며 사회적 계층이동성이 높고 또 문화적으로도 자유주의적인 사회라는 점이다. 이동성의 전 사회적 제고에 의해 기존의 경계들이 변형되거나 무너지는 것이다. 근대화나 세계화는 결국 이동성의 실현 정도를 집약하는 다른 표현들이다. <sup>14</sup>

## Reference

- 1) Ong, Walter (1982). *Orality and Literacy*. Routledge.
- 2) Anderson, Benedict (1982).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Verso.
- 3) Lerner, Daniel (1958). *The Passing of Traditional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 4) The Economist (2007). The world goes to town. May 5th.
- 5) McLuhan, Marshall (1994).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Reprint Edition]. The MIT Press.
- 6) 김신동 (2001). “이동전화 사용과 커뮤니케이션 시공간의 재구성”. *Telecom World* 1(2): 21-40.  
Use of Mobile Telephone and Reorganization of Communication Time and Space by Sin-dong Kim (2001) *Telecom World* 1(2): 21-40.
- 7) Briggs, Asa and Burke, Peter (2005). *A Social History of the Media: From Gutenberg to the Internet*. (2nd Ed.) Cambridge, UK & Malden, MA: Polity.
- 8,9) Newsweek (2007). The road of no return. May 14 & 21. pp. 42-44, 49.
- 9) 김신동 (2004). “이동전화 이용행태의 국가 간 비교연구”, <한국언론학보> 48(2): 429-456.  
Comparative Study on Use Types of Mobile Telephone Between Countries, [Korean Press Periodical] by Sin-dong Kim (2004). 48(2): 429-456.
- 10) Rheingold, Howard (2003). *Smart Mobs: The Next Social Revolution*. New York: Basic Books.
- 11) The Wall Street Journal Asia (2007). An expanding labor force enhances China's investment appeal. May 16, pp. 12 & 16.
- 12) Kim, Shin Dong (2003). The shaping of new politics in the era of mobile and cyber communication: The Internet, mobile phon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In Kristof Nyiri (Ed.), *Mobile Communication: Social and Political Effects*. Vienna: Passagen Verlag.
- 13) Rifkin, Jeremy (2000). *The Age of Access*. New York: Tarcher Putnam.
- 14) Harvey, D. (1996).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Cambridge, MA & Oxford, UK: Blackwell.
- 15) Harvey, 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Cambridge, MA & Oxford, UK: Blackwell.

This claim has been accepted without difficulty by many scholars related to sociology, anthropology, socio-psychology, and geography after Durkheim. Of course, not all scholars have supported this proposition with the same background and basis. This paper defines the proposition more clearly according to the method of Harvey. First, the statement that time and space are social components does not mean that they are imaginary components where the perception and recognition of time and space are not relevant to the realities. According to Harvey, time and space are embraced in the universe and in the concept of the universe which generally abstract material existences. Therefore, time and space are fundamentally part of the material reality and close to the method which recognizes the reality. Namely, the concept of time and space is a kind of method which enables humans to categorize and shape some objects which really exist rather than themselves as unchanging fixed truths. Second, time and space are objective. The method to recognize and define time and space is in some ways metaphorical and subjective, but they form an objective reality after being formed socially. Harvey claims that the social harmonization of time and space exists as an objective social truth by quoting an example which shows how Bourdieu organized a social order by allotting people and their behavior in a separate time and space in the Kabyle society of Northern Africa. In Kabyle society, the role of females is defined according to compartments of time and space wherein the distribution and interference of power operates. Phenomena identical in quality to this can be found in all societies. In Korea, the roles of gender are defined according to time and space such as it is dangerous for women to hang around late at night (or they should not do so), and males should not cook. The regulation of social behavior means the connection of social power to space. Or it can be said that the expression of power is always established by following a unique composition method of space. In addition, if space always contains social power, the re-organization of space means the re-organization of the frame for the expression of social power.<sup>15</sup>

This paper tries to explain in the social, political, economical, cultural sides the point that the increase of mobility is changing the re-organization method of time and space. In daily experience, this paper also tries to highlight the meaning of mobility which increases following the increase of mobile media. The concept of mobility draws our full attention in the fundamental dimension because all human affairs have to come to interactions of power, which is called 'composition of space,' and the composition method of space fundamentally changes according to the extent of mobility which individuals or groups experience. The difference between two societies which Lerner found in the Middle East in 1960, namely the difference between pre-modern society and modern society, is the difference of ideas about mobility. Is the difference between modernity and ex-modernity caused by the collapse of mobile families which modernity is based on? Orders of firm modernism, such as the guarantee of a happy stable family and the guarantee of a strong country and the modern values and systems through continuing growth by means of large-volume production and consumption, face new challenges ahead. The patriarchal family system is now changing as the divorce rate or cohabitation rate increases in advanced capitalist societies. The content and form of the marriage and family, which is the oldest human system, is now changing. What draws our attention is that such changes are occurring in societies where mobility is high, namely, in societies which are politically open and where females' economic activity rate is high, social class transference is high and there is cultural freedom. The existing boundaries change or collapse because of the rise of the mobility of the entire society. The expressions -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 are expressions which summarize the real potential of mobility. 